

“國家목표達成 科學技術로 先導할때”



崔永煥
〈科學技術處 技術政策室長〉

앞으로 15年後인 2000년까지 우리나라는 「世界 15位 經濟主要國」과 「先進福祉社會」를 이룩하여 國際社會에서 先進國의 一員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할 國家發展의 基本目標이고,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엄숙한 명제다.

바로 이러한 國家目標達成을 뒷받침하고 선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科學技術일 수 밖에 다른 선택여지가 없기때문에, 우리는 科學技術主導의 정책기조를 확립하고 하루라도 늦기전에 미래를 향한 목표와 추진방향을 세워 차질없이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배경아래서 지난해에는 각계전문가 약 300여명의 지혜와 국민의 광범위한 뜻을 모아 「2000년대 科學技術發展장기계획」의 기본방향을 수립·공포하였다. 이 계획의 目標은 기본적으로 세계10위권의 기술선진국을 이룩하되, 특히 우리가 해야하고 할 수 있는 특정기술 부문에서는 세계의 최선진수준에 도달해야겠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의 과학기술기반을 발판으로하여 이와같은 과학기술 발전목표를 향해 우리의 역량과 可用資源을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활용하여 착실히 전진해 가는데 있다. 이와같은 基本前提아래서 금년에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 중점사항 몇가지를 요약해 본다.

첫째, 「2000년대 科學技術發展장기계획」을 집행면에서 뒷받침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중요부문별 실천계획(Action Program)을 작성하는 일이다. 장기계획에서 제시된 중점 추진분야들은 技術系列別로 10개범위내의 사업그룹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묶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늦어도 내년 上半期까지 완성할 예정이다.

이러한 실천계획은 그야말로 「實踐」을 전제로 하므로 每事業그룹별로 정부의 關係部處, 산업계, 연구소 및 대학의 대표들에 의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들을 통해 기획·수립될 것이며, 그 결과는 6차5개년계획과 연차별 자원배분에 연결·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둘째, 特定研究開發事業을 2000년대를 향한 목표지향적인 방향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82년이래 실시되어 오고 있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이제 어느정도 본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된다. 지난해에는 政府資金 500억원과 民間投資 155억원, 계 655억원이 투입되어 212개 企業과 3,900명의 연구원이 참여하여 府·學·研 협동연구의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금년에도 정부예산 500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민간투자와 결합하여 전자컴퓨터·정밀화학·신소재·부품·목적기초 연구분야등에 중점투입될 것이다. 그리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초기연구개발과제의 선정작업시부터 관계기업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연구비에 대한 성과분석과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와 기업화를 촉진시켜 나갈 것이다.

세째, 기술개발을 통한 외채절약사업을 보다 확대추진해 나가는 일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당면과제중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외채절감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기술개발을 통해서 뿐이다.

科學技術處은 지난해 해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부품과 소재 약 50개를 선정, 이를 집중적으로 국산화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술외적 장애요인을 해결하여 輸入代替에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금년에도 약 65개품목을 선정하여 종합적 심층대책을 마련하고 국산화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외채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3개년계획」에 따라 금후에도 特定研究開發費의 상당부분을 투입하여 기착수된 에너지절약기술개발과제를 계속 추진하고 신규과제를 발전하여 확대추진해 갈 것이다.

넷째, 中小企業의 기술집약화사업은 계속 확대해 나가는 일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없이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

이란 생각할 수도 없다. 지난해에는 기술진흥심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하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및 인력지원, 조세 및 자금, 신기술제품에 대한 구매와 시장 조성, 각종 행정기준 및 절차 간소화등의 면에서 그 어느해 보다도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금년에도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집약화 촉진사업을 위해 각종 정책지원수단을 우선적으로 투입·활용함으로써 技術集約型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구조고도화를 선도해 갈 수 있는 「활력있는多數」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企業相互間 產·學·研間에 있어서 보다 추진하고 조장해 나갈 것이다.

기술개발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에 可用投資財源과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협동연구개발체제구축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日本과 歐州는 말할것 없고, 최근 美國에서도 半導體·生命工學등 첨단기술분야에서 대기업상호간 또는 대학등과 공동연구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연구개발의 분위기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기는 하나 금년에는 기존의 産業技術研究組合制度라는 장치와 특정연구사업이라는 수단등을 최대한로 활용하여 협동연구개발을 적극 추진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母企業과 受給企業이 기술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소재 부품등 중요품목의 발전초기단계부터 母企業이 참여하여 개발비분담, 기술전수를 해주고 개발제품의 우선 구매도 해줌으로써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하는 실효성있는 지원·유인시책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여섯째, 창조적인 기술혁신의 원천인 기초연구능력 향상을 지원해 주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大學에 대한 기초연구비지원규모가 지난해의 87억원에서 새해에는 140억으로 증대되어질 것이다. 앞으로 총 연구개발비중 20%를 기초연구분야에 투입한다는 목표아래 해마다 그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연구의욕과 능

력을 가진 大學教授에게 충분한 연구비를 지급해 줌으로써 기본적인 연구조건을 조성해줌과 아울러 大學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잠재능력을 활성화시켜 나갈것이다.

그리고 우수 理工系大學 및 大學生에게도 충분한 장학연구비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추진하여 그들의 왕성한 창의력을 살리는 한편, 大學別로 특성있는 분야별기초연구센터가 擴大될 수 있도록 중점육성해 나갈것이다.

일곱째, 기업의 자체적인 기술혁신활동을 추진하고 기술개발투자마인드를 자극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제도와 유인시책을 개선해 나갈것이다.

우선 기술개발자금면에서 지난해의 2245억에서 금년에는 3025억원으로 그 규모를 확대공급하고, 특히 벤처캐피탈의 활성화에 주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기술신용보장제도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되게 될것이다.

세제면에 있어서는 기존 각종 조세지원제도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研究 開發 制度를 확립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재무부가 추진하여온 세계종합개정작업의 일환으로 기술 및 인력개발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육성에 보다 역점이 주어지는 내용의 세제가 그 모습을 구체화시키게 될것이다.

한편 신기술제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수요창출을 한층 높이기 위하여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중기구매예시제에 의한 계획구매확대, 품질·성능위주의 종합낙찰제 실시, 국민투자기금에 의한 국산기계류의 수요자금융확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신기술보호제도의 내실화, 그리고 덤핑에 대비한 덤핑방지시책의 운용과 각종수단을 유기적이고 일관성있게 동원·활용할 것이다.

끝으로 과학기술투자의 확대를 위하여 정부의 관계예산을 전년대비 20%를 증액시키고 전매청, 전기통신공사, 한전등 政府公企業의 관계분야에대한 기술개발투자를 유도하여 나갈것이다. 한편 우수인재의 양성·확보를 위하여는 인구 1만명당 30명수준인 15만명의 研究開發 및 엔지니어링(RO & E)요원을 2000년까지 확보할 수 있기 위하여 理工系大學 및 科學技術院강화, 과학기술대학 育成·發展, 해외두뇌유치 및 임무지향적 해외연수등 일련의 사업은 이미 확보된 예산에 따라 새해부터 조직적으로 전개하여 나갈것이다. 그리하여 새해인 병인년은 우리나라 科學技術史에 하나의 뚜렷한 선을 긋는 의미 있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科學技術진흥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한사람으로서의 뜨거운 所望이자 意慾이다.



「과학과 기술」誌齡200号 發刊



유신문화인쇄사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2가82-2



266-4331 · 274-2356

274-2357 · 274-2358